# 제18대 대각회 이사장에 보광 스님 취임

## 9월 7일 법안정사서 취임식…주지에 법수 스님 임명

**사무전산화 및 포교활성화 기치**
**용성스님 역경사업 계승 비롯해**
**화과원 사적지정 등 과제 내걸어**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재단법인 대각회는 9월 7일 서울 목동 법안정사에서 제18대 이사장 보광 스님 취임식을 봉행했다.

대각회는 근현대 한국불교 선지식인 진종 용성대종사의 대각사상을 현창하는 법인으로 산하에 170여 사찰이 소속돼 있다.

이날 취임식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지침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하에 진행됐으며, 삼귀의례와 반야심경봉독에 이어 법안정사 · 대각정사 주지 법수 스님 임명, 제17대 이사장 직무대행 흥교 스님 이임사, 제18대 이사장 보광 스님 약력소개 및 취임사, 법안정사 주지 법수 스님 인사말 및 이사장 보광 스님 법문 순으로 진행됐다.

보광 스님은 1970년 동헌 스님을 계사로 불심도문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1980년 범어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대성사와 정토사 주지를 지내고 대각회 감사, 이사, 대각사상연구원장 등을 맡아 대각회에 기여했다. 제14대 종회의원, 재심호계위원, 동국대 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조계종 13대 호계원장으로 있다.

스님은 동국대 불교대학을 졸업해 동 대학원에서 불교학을 전공, 일본 붓코대학 대학원에서 불교학 박사를 수료했다. 동국대 교수로 정토학 연구, 정토사를 일구며 염불신행 지도를 통한 전법포교에 매진해왔다. 용성선사연구를 비롯한 20여 종의 저서를 출간했으며, 청조근정훈장, 종정상, 포교대상 등을 수상했다.


제8대 대각회 이사장에 취임한 보광 스님.

이사장 보광 스님은 취임일성으로 법인의 독자성을 지키면서 조계종 종도로서 역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스님은 임기 동안 첫째 법인 사무 전산화, 둘째 소속분원 안정화 및 포교활성화, 셋째 직영사찰 법안정사 · 대각정사의 신도포교 신행활성화 넷째 용성 스님 역경 및 화과원의 사적지정 등 4가지 분야에 매진할 것임을 덧붙였다.

보광 스님은 "대각회는 독립운동민족대표 33인 중 불교대표로 참여하였고 평생 독립운동에 헌신한 한국불교 대선지식이었던 진종 용성조사님의 유업을 계승하고 현창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라며 "1969년 9월11일 동헌 완규 대종사님과 불심도문 큰스님이 중심이 되고, 고암, 자운, 성철, 광덕 등 큰스님들의 원력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18대 이사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지금까지 수행승이면서 동시에 불교학자로서 용성 스님 문손으로 용성 스님 연구를 해왔고, 조사님의 유물을 근대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왔다"며 "역대 이사장 스님들과 흥교 큰스님 뒤를 이어 법인 발전과 용성 스님 유업을 현창할 것이며, 법인 독자성을 지키며 조계종 종도로서의 역할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이날 행사에서는 법안정사 주지 법수 스님 임명이 이뤄졌다. 주지 법수 스님은 "이사장 보광 스님의 뜻을 받들어 법안정사가 도심포교당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중이 한마음으로 도심포교도량으로 거듭나도록 하자"고 말했다.

취임식 법문으로 보광 스님은 "대각회 중심도량인 법안정사가 도심사찰로 포교와 신행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각회 직영사찰에 처음으로 주지대행인 총대를 두고 적극적인 활동에 매진하고자 한다"며 "주지 법수 스님과 신도들이 화합하여 미래포교와 용성 스님 선양사업 등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 조계종, 대선 앞두고 '불교정책기획단' 구성

**9월 3일 교구본사 주지회의서**
**기획실 종무 보고로 계획 밝혀**
**각 정당 제안할 불교정책 공의**
**전통사찰 전기요금체계 개선도**

조계종이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불교 전통문화 정책의 개선점을 공약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공의를 모은다. 9월 중 '대통령선거 불교정책기획단'을 구성하고 분야별 의제를 논의, 향후 정당별 대선 후보자 초청 공청회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기획실장 삼혜)은 9월 3일 의성 고운사에서 진행된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가칭)20대 대통령선거 불교정책기획단'은 대선 후보자들의 불교 전통문화 관련 공약을 제안하기 위해 구성 · 운영된다.

기획단은 총무원 기획실장을 단장으로, 교구본사 주지 1~2인, 중앙종회의원 1~2인, 총무원 총무부장 · 재무부장 · 문화부장 · 사회부장 · 교육부장 · 포교부장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분야별 의제 설정 후에는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총 10인 가량의 정책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다.

올 9월 중 기획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정책 기조 및 분야별 의제를 설정해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제에 따른 공약을 세분화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종단 내 의견을 수렴해 불교계 대응전략에 대한 세미나도 계획 중이며, 연내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정당별 대선 후보자 초청 공청회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획실은 각 교구본사에 전통문화와 관련한 공약 제안을 당부했다.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관한 정책이 핵심인 만큼, 공약은 교구 중심이 아니라 불교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 달라는 요청이다.

이날 기획실은 전통사찰 전기요금 체계 변경을 위한 보고도 진행했다. 이는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유사찰이 공익적 용도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현행 전기요금 체계상 실제 사용전력보다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서 시작됐다. 기획실측은 "전통사찰의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대정부 현안과제로 삼고 정부에 개선을 요청하고 있지만, 다른 공익적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이유로 한국전력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국가법으로 지정 · 관리하는 전통사찰의 공공적 · 공익적 가치를 외면하는 것이자 결국 전통문화 계승발전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방기하는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획실은 국가지정문화재가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 · 관리될 수 있도록, 이 사안을 대선 정책과제로 포함하는 등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유사찰의 전기요금 현황을 파악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매뉴얼로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차기 교구본사주지회의는 11월 중 동화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송지희 기자

# "조선왕조실록 · 의궤, 환지본처해야"

**조계종 종회, 9월 10일 결의문 채택**

조계종 중앙종회가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 의궤의 환지본처를 강력히 촉구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는 9월 10일 제211회 임시회를 열고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 의궤 문화재제자리 찾기 결의문'을 채택했다.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 의궤는 월정사 등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환수됐지만, 정부는 장소의 적정성과 보관연구 등의 이유로 원소장처인 월정사로의 이관을 사실상 거부하는 상황이다. 특히 월정사는 해당 문화재를 위해 왕조실록 · 의궤박물관을 건립하는 등 충분한 여건을 갖췄지만 여전히 환지본처는 요원하다.

이에 중앙종회는 결의문을 통해 "서울 고궁박물관이 소장 중인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 의궤는 오대산 월정사가 목숨 걸고 수호하던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제자리를 잃고 타향살이 하는 이 문화재들은 일제강점기 강제로 침탈된 치욕적인 역사의 흔적으로, 2006년 민간단체 등의 노력으로 고국땅으로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환지본처의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돌려받은 문화재가 국유문화재가 됐기 때문에 지역에 돌려보내는 것은 곤란하다는 논리와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지역의 문화재를 서울의 박물관 수장고와 야외정원에 켜켜이 쌓아놓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참담할 뿐"이라고 한탄했다.

종회는 "항온항습 기능을 갖춘 장소의 부재를 운운하며 차일피일 미루다가 막상 평창 월정사 인근에 최신 시설을 갖춘 박물관이 문을 연 지금도 제자리로 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가치가 빛을 발한다"며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찾고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 의궤는 환지본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 포교원, 제33회 포교대상 후보자 공모

**계층 · 직능 · 문화 등 6개 분야**
**10월 15일까지 접수…11월 시상**

한해 동안 포교활동을 통해 불교와 종단발전에 공을 세운 이들에게 수여되는 포교대상이 후보자를 공모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은 10월 15일까지 제33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대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추천분야는 계층포교(아동, 청소년, 대학생, 청장년, 노인 등), 직능포교(입법, 사법, 행정, 교육, 군, 경찰, 직장직능 등), 문화체육포교(미술, 성보, 건축, 음악, 연극, 영화, 무용, 문학, 학술, 연예, 스포츠 등), 사회포교(환경, 통일, 국제, 인권, 장애인, 복지, 여성, 노동, 다문화 등), 대중매체포교(방송, 신문, 잡지, 출판, 인터넷, 모바일 등), 지역포교(신도 교육 및 조직 운영, 지역사회 기여도 등)의 6개 분야다.

추천대상은 각 분야서 3년 이상 활동하면서 포교 공로가 현저한 스님 또는 재가불자, 사찰, 단체로 대상 후보자는 10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수상자는 5년 이내에 동일한 공적사항으로 추천될 수 없으며 종단에서 수여하는 일반표창 수상자는 1년 이내에 동일한 공적으로 추천될 수 없다.

교구본사 주지스님이나 종단 소속 포교단체 대표자, 종단 등록 신도단체 대표자라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공모에 참가하는 이는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양식을 받아 추천권자의 추천서, 후보자 포교활동 공적서, 사진이 부착된 이력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시 종단 부여 자격증 또는 품수증 사본, 종단기관 재직증명서와 공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재가자는 신도증 사본과 당해 연도 교무금납부영수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공적에 따라 대상(종정상)과 공로상(총무원장상), 원력상(포교원장상)으로 나눠 시상하며, 시상식은 11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02)2011-1904

노덕현 기자


